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2022. 9. 8 (목)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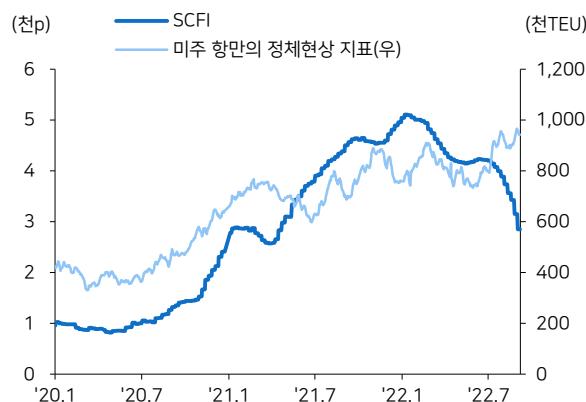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133.0p(+19.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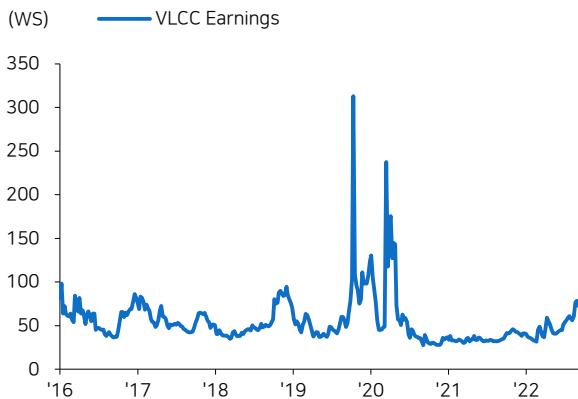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2,847.6p(-306.6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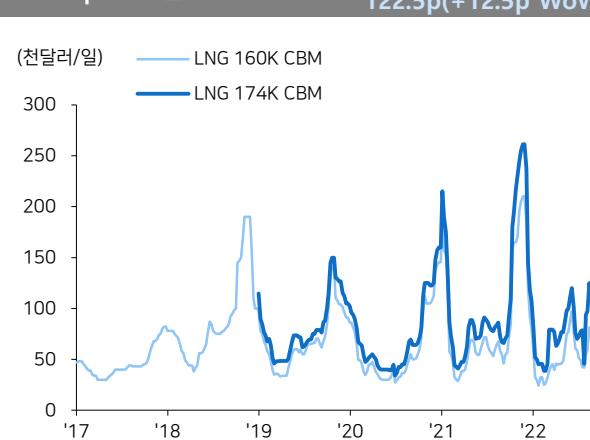
VLCC Spot Rate

72.7p(-5.9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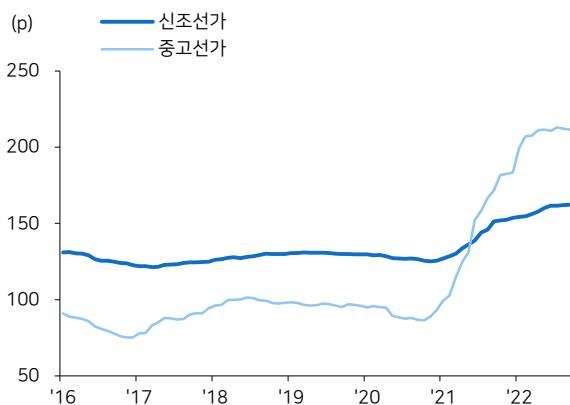
LNG Spot 운임

91.5p(+13.0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2.2p(+0.0p WoW)
211.5p(-0.5p WoW)



항공시장 지표

261.7p(-0.4p DoD)
86.3p(+1.3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EU, 러 가스도 가격상한제 검토...러, 곡물 수출 재개 합의 파기 위협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에 이어 천연가스도 가격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 등을 아예 공급하지 않고,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합의도 파기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고 보도됨. 유럽연합은 서방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입카르텔을 결성해 러시아의 돈줄을 옥죄려는 방향임. (YTN)

49년 만에... 포스코 고로 3곳 모두 가동 중단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항제철소 고로(용광로) 3기의 가동이 7일 49년만에 전면 중단됐다고 보도됨. 고로 자체는 침수되지 않았지만, 후속 공정이 이뤄지는 거의 모든 작업장이 물에 잠겼고 고로도 가동을 중단함. 고로가 5일 이상 가동을 멈추면 내부 균열이 일어나 재가동까지 3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알려짐. (세계일보)

Peak passed: S&P Global foresees bulker rate shock before 2023 recovery

S&P에 따르면 벌크선 운임은 2023년 회복기를 맞이하기 전 2022년 하반기 20~30%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보도됨. 통상 3분기는 계절성에 따라 호황기이지만, 2022년 피크는 2분기였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도됨. 2023년에는 평균 1,300~1,400p수준이고, 2024년 1,400~1,500p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알려짐. 운임하락은 정체현상 완화와 물동량 감소에 기인한다고 설명함. 예상보다 빠른 중국의 봉쇄 완화나 우크라이나 종전 등이 벌크 운임 상승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함. (Tradewinds)

Saudi Aramco launches tender for expansion of giant Manifa offshore field

사우디 Aramco가 대규모 Manifa 해상유전 확장프로젝트 EPCI 입찰을 시작했다고 보도됨. 2027년까지 생산량을 1,300만BPD까지 확대할 계획임. Manifa 유전의 jacket은 최대 12개 설치되는데, 수심 6~12m정도라서 작업 난이도가 있다고 알려짐. 현대중공업, Saipem, McDermott International 등 최대 10개 업체/컨소시엄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Manifa외에도 Zuluf, Marjan, Safaniyah와 Beeri 유전 확장 프로젝트를 진행 중으로 최근 최대 10개의 EPCI 입찰을 시작했다고 언급됨. (Upstream)

CJ대한통운, 말레이시아 1,070억 투자...철수설 딛고 '생존 플랜' 가동

CJ대한통운이 말레이시아에서 대규모 투자에 나서 향후 5년간 약 1,073억원을 투자한다고 보도됨. 창고 용량을 93,000m³으로 확대, 20~35대 가량의 트럭 및 트레일러를 교체할 예정임. (더 구루)

MSC pencils in fresh raft of container ship newbuildings worth at least \$2.16bn amid a cooling market

컨테이너시장 냉각에도 MSC가 neo-panamax급 컨테이너선 12척을 Yangzijiang 조선소에 발주했다고 보도됨. 글로벌 선복량은 연간 8% 성장, 수요는 2~3%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 16,000TEU급 선박의 선가는 척당 1.8억달러로 총 21.6억달러 계약임. 2024년말에서 2026년 사이 인도될 예정임. 한편, 컨테이너선 용선료는 4월 고점대비 20% 하락한 수준임. (Tradewinds)